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17, 사사기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여호수아서 끝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 그래, 우리는 순종할 거야.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간이 더 있다면 사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2장 중반부터 시작하는 상당히 긴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경을 갖고 있다면 따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세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아시나요? 판사 시절에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개되었으며,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가 성령의 임재와 복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을 2세대 기독교인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불쾌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과 말씀이 급격한 변화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2세대 문제입니다.

사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 세대 전체가 그 조상들에게로 모아졌느니라 .

여호수아서 말미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할 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자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바알을 신으로 언급할 것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배교.

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은, 이 배교는 우상 숭배이며,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인가요, 사라? 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며, 그들이 헌신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같이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더라(12절).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느니라. 그들은 다양한 신들과 주변 사람들을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요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억압은 주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그들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주변의 적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그 언약의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미안해요, 축복과 저주요? 만일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 중 일부는 지정학적 안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적들을 사용하여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은 그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노략꾼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읽어보겠지만 그들은 이 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빨리 돌아섰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시며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이라.

그러나 재판관이 죽자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부패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세대 문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명의 판사의 삶을 따라가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다른 주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모든 종류의 현대적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용합니다. 제가 약 15분 정도 후에 다시 언급할 마지막 문장은 아마도 사사기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17장부터 21

장까지의 내용이 실제로 초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자, 평소대로라면 다음 강의를 다시 했을 텐데, 오늘 끝까지 압축해 보겠습니다. 응,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알았어, 알아,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이 지도로 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약 5번 정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포괄적인 지정학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지도를 NIV Atlas에서 성경용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보고 싶다면 도서관의 참고자료 섹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록색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주요 심사위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출애굽의 연대에 따라 약 400년 또는 약 200년 또는 일부 기간에 전개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이집트 남쪽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는 세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타이트인들은 이집트인들과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몇 가지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Youngblood를 읽은 것을 기억한다면 히타이트 조약 양식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로 산간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리적 위치가 유용합니다. 그들은 해안 평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압의 압제입니다.

모압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블레셋은 특히 사사 시대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레셋 평야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호두까기 인형처럼 양쪽을 꼬집는 이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유목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도 이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세 번째 요점은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 한 부족이 두세, 네 명의 다른 부족과 함께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그것은 하술 왕이고, 북쪽 지파들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도와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종의 독립된 단위입니다.

중앙 규칙은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무엘상에서 일어나게 될 다가오는 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전환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면에서 보면 정말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중앙 규칙이 없고 부족 개체들이 서로 뭉친다는 점에서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사사기에 나열된 모든 연도를 합산하여 전체 기간을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중복됩니다. 북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연대순으로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겹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월은 우리가 기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나요? 지금까지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응, 계속해.

네, 문제는 왜 이 시기에 일종의 중앙 통치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서로 다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을 모르지만 이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말했듯이 여호수아 말기에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신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신권 통치 하에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장막과 함께 실로로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곳 전역에서 그들에게 토라와 레위 사람들을 가르칠 제사장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화된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빨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구약성서의 사회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매료시킨다고 하며, 그들은 사사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금 등을 포함한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기였습니다. 좀 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의 말의 신학적 의미인데,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 나선은 아래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라, 질문이 뭐였나요? 부족들이 싸웠다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파들이 서로 싸웠다는 뜻입니까? 그들은 적과 싸우기 위해 뭉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첫 번째 요점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부족 간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에브라임과 길르앗과 므낫세의 길르앗 땅이니라. 실제로는 둘 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고마워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뭉쳐 자신들을 공격하는 외국 세력을 상대한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좋아,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책의 메시지는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을 조금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신명기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백성이 불순종하면 여호와와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책의 주제별 배열이 끝날 무렵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문학적 관점에서 책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19장까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끝이고 우리가 유다 지파에 대해 생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두드러지며, 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적인 감독과 주권, 이 모든 사건의 지휘를 통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나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는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 각각은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글쎄, 계속하자. 다시 히브리서로 빠르게 우회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실한 사람들의 목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아마도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약 4번의 다른 강의나 사사기에서 4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기준표를 통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건 이게 네 가지야, 알았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기며 정의를 행하며 약속된 것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이 4명의 대심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자면, 이 네 사사 각각의 주요 사건과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아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책을 읽어보면 심사위원은 모두 12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웃니엘과 에훗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좀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재판관으로

, 들어가서 이 왕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왕은 너무 비만해서 에훗이 달리는 방식처럼 지방이 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Othniel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모두 직접 읽고 그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이 특정 기간에 여성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데보라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다른 여성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Jael 또는 Ya-el, 저는 Ya-el로 발음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로 JAEL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연자 맷돌을 떨어뜨리는 이름 없는 놀라운 여인이 있죠? 누가 그럴 자격이 있었나요?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가 반드시 최고의 여성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그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앗,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백업해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고 포인터를 찾으면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가 벤엘과 라마 사이에서 재판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여기가 Deborah의 위치입니다.

그녀는 베델과 라마 사이의 나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바락은 가데스와 납달리 출신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결정과 재판을 위해 사건을 드보라에게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솔에서 나온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Hazor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솔에 관해 이야기한 이유는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왕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주요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조르는 그 도시 국가, 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왕국입니다.

어쨌든, Hazor는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드보라가 여기 아래에서 저기 있는 바락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예,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종의 부족한 위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족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야기에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다볼 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향하는 기손 시냇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지역에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 바로 이 아래에는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핵심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남쪽 위치를 주목하십시오. 이 지역에서 전투 자체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좋아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이야기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언급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왜 히브리서에 드보라가 언급되지 않고 대신 바락이 언급된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결국 그녀는 여기서 주요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동안 그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판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시간이 지체됩니다. 랍피돏의 아내이자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건 그렇고, 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아내와 여자에 대한 단어는 동일합니다. Eshet Lappidot은 Lappidot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청금석 같은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같은 여자야, 자기야.

어쩌면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름 없는 인물인 라피돏의 아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단지 아주 많은 후츠파와 열정, 힘 등을 가진 여성 일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 아래서 재판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을 잡는 것은 약간 과장된 번역입니다. 그가 사람을 가데스와 납달리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청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1만 명을 데리고 다불 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 강으로 유인하여 이르게 하라 그것들을 당신 손에 넣으세요.

그 지도에 딱 들어맞는 것들을 모두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배교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이름입니다. 시스라는 그의 장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방금 읽었습니다. 구원자는 드보라와 바락의 명령을 맡은 드보라입니다. 이제 나는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중단하고 가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보라가 여기의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드보라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내 말은, 그녀는 바락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말하고 바락은 “아니요, 나는 당신 없이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갑니다. 물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상대하는 영광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텐트 말뚝을 머리에 박는 사람은 야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준 히브리서의 구절입니다.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바락에게서 약점을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드보라는 그를 꾸짖고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에게서 명예를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승리합니다. 그것은 그것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바락과 다른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내용을 구성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저자들이 자신의 문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왜냐하면 1세기의 문화는 사사시대와는 다소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진술 뒤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풀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락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아마도 수잔나에 대한 언급보다는 남성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게 질문을 제기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네,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마도 Priscilla가 제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응,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Priscilla가 이 글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흥미로운 학자인 Harnack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소수의 의견일 것이다. 그러나 제안 중 하나는 히브리서가 여성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익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다.

그리고 내 제안 역시 전적으로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반드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Dr. Green이 그 점을 언급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엘과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5장의 시를 읽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멋진 시거든요, 그렇지요? 시스라가 들어온다.

여기 25절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물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습니다. 귀족을 위한 투우에서 그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응고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를 잠들게 만듭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시거나 마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텐트 말뚝을 잡았고, 오른손은 인부의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혹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 말은, 이것이 있었다면 의성어라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부서지는 모든 것들. 그녀의 발 앞에 그는 가라앉았고
넘어졌습니다. 그는 거기 누워 있었고, 그녀의 발 앞에 가라앉고
넘어졌습니다.

그가 가라앉은 곳에서 그는 넘어져 죽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는 물론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을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멋진 시. 자, 우리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전투 장소.

우리가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곳에 한
번 이상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전쟁터입니다. 사실 아마겟돈의 바탕이
되는 하르 므깃도가 그 지역을 가리킨다면 앞으로도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

어쨌든 그것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승리는 시로 축하됩니다. 이 시는
시스라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정에서 그들은 시스라와 싸웠으며,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시가
아니라면 아마도 이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초자연적 힘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손
강은 그들을 휩쓸어 갔으니 그 오래된 강은 기손 강이니라.

기손강은 다소 작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홍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바다로 휩쓸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등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기손 시냇물은 우리가 약 3주 후에 할 이야기 중
하나에 다시 나타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기드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를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므낏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휩쓸어 가겠죠? 반 유목민, 양떼와 소 떼가 여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대추나무가 있는 이스라엘 산간 지방에 있는 작고 멋진 자두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왔던 곡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그들은 가자까지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사진을 얻으시겠어요? 심지어 메뚜기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너무 뻑뻑하고 온 땅에 있는 메뚜기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구절을 읽은 다음 잠시 후 어떤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로 와서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Gideon이 이를 맡게 되면 마침내 다시 기록해 두고 싶은 지리학적 위치가 생깁니다. 헤롯의 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기 길보아 산 기슭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모레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계곡과 가깝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계곡의 화살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는 곳을 헤롯 골짜기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특별한 전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와인 압착기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산간지방에 있어요. 그것은 기반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 같은 것을 넣고 밟고 짓밟으세요. 주스는 그것을 통과하여 바로 저기 있는 작은 통에 모이게 됩니다. 내가 왜 포도주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가로질러 오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작은 시설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으깨고 있습니다.

아마 가로가 3피트 정도 될 거예요. 그들은 보통 어떻게 곡물을 생산합니까? 중동, 베두인 등에서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어떻게 곡물을 생산합니까? 어서, 베카. 글썄요, 그들은 그것을 돌로 갈아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왕겨를 제거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져오는 모든 곡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가져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룯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타작마당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곡물이 있습니다.

황소가 그 위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썰매, 타작 썰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사진을 몇 주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껍질을 부수고, 키질용 포크 중 하나를 집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이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나도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람, 당신이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람이 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 겨를 날려버립니다.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쪽정이를 날려버리고 좋은 곡식을 땅에 떨어뜨리느니라.

물론, 언덕 꼭대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적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 좋아요, 쉬운 곡물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러분이 평소에 곡식을 타작하던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난 당할 것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최소한 먹고살기에 충분한 와인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의 작은 포도주 압착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것을 숯돌에 가져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일종의 밀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디온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4절은 가자지구까지 농사를 망쳤습니다. 꽤 끔찍해요. 11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입니다. 그는 '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아주 작은 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는 주님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다소 회의적이며 아마도 기드온의 첫 번째 약점은 그의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의심일 것이다.

나는 그것이 그의 주요 약점이 아니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연이어 표징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은혜롭게 만나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만지니 불이 붙고 그것은 꽤 극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제가 준비한 양털을 젓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건조합니까? 짜잔,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는 어떨습니까? 양털은 건조하게 하고 주위는 모두 젓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몇 명으로 줄이시겠습니까? 300, 맞습니다. 처음에는 32,000부터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기드온은 여전히 표적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가서 꿈에 어떤 적들이 보리떡이 내려와서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듣는다. 그리고 그에게도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아, 기드온이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을 모든 단계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보석 송배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세요. 상상력을 주의 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는 무엇이 있나요? 300명 맞죠? 한 손에는 무엇이 있나요? 빛이 들어 있는 항아리.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들었다. 트럼펫. 그 사람들의 검은 어디 있지? 여기 아래.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원수가 서로 죽이기 시작하므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시고, 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의 무리를 완전히 전복시키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긴장감은 무엇입니까? 글쎄, 우리는 부족들이 예를 들어 요단강과 같은 계곡을 건너려고 할 때 여기에

모두 함께 있지 않다는 매우 슬픈 징후를 봅니다.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세요.

Sukkot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에서 더욱 악화될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8장 중간에 있습니다 .

기드온의 또 다른 약점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약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것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바로 기드온에게서 그것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기드온의 진짜 약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간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아비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첩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가 왕이시니라. 그런데 9장을 읽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정말로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그는 또 무엇을 합니까? 아, 난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거 알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이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약탈.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에봇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에봇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8장 끝.

이런 말은 어디에 있나요?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27절).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음행하여 섬기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의 약점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교만은 그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에봇과 관련하여 자신을 세우게 만듭니다. 에봇이 가졌던 인지된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이 아닙니다.

좋아, 어쨌든 지금은 기드온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하자. 입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입다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는 길르앗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요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지역 전체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그는 암몬 사람들과 거래를 했고 지도 가장자리를 따라 그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단강 동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한 두 지파 반, 즉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저기에 있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걸 왜 보여줬지? 라벨도 없어요. 바위덩어리죠? 순서대로 바위. 내가 여동생을 데리고 이스라엘 고고학 여행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그녀는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6번째 현장에 도착한 후 그녀는 차에서 내리면서 바위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방이 4개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이 특정 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방 4개짜리 집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일종의 긴 방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여기 뒤쪽에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2, 3, 4개의 입구가 있는데, 저 밖은 일종의 법원 구역입니다. 방이 4개 있는 집 중 대부분이 2층으로 이루어진 집에서는 동물을 1층, 즉 1층에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겨울에 약간 쌀쌀해질 때, 장마철에 동물들이 아래에 살고 있다면 열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약취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입다 이야기에서 1층, 즉 1층에 사는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합니까? 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입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케이티? 그렇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내게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주께 번제로 드리리이다 글썄, 그 사람은 뭘 기대하는 거지? 그는 동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무엇이 나오나요? 누가 나오나요? 그의 하나뿐인 딸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 심하고 심하고 심한 배도.

꽤 끔찍하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군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숭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압제하고 있지만, 암몬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입다의 임무이며, 여기서 우리는 구출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가장 맛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첩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가족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를 데려가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위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11장에는 그가 암몬 사람들과 협상하기 위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이곳에서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출애굽의 연대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요점은 그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장 11절,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길르앗을 건너고, 므낫세를 건너고, 길르앗 미츠파를 통과하고, 내가 방금 인용한 것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을 네게 번제로 드리겠노라. 그는 승리하여 돌아오고 그의 딸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비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서약을 이행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서 울자고 하고 두 달 동안 산에서 울면서 지낸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일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녀가 보호를 받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처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녀가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다가 아마도 미신적인 방식으로 서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려고 했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결국, 민수기 30장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인간 생명을 빼앗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맹세한 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희생이라는 추악한 명령이 이 전체 그림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의 일부 문화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아 살해와 관련하여 열왕기하를 읽을 때 배우게 될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도 토라가 그의 생각을 형성한 것보다 주변 문화가 그의 생각을 더 많이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자, 여기서도 앞서 말했듯이 부족 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마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삼손과 지도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좋아요, 처음 몇 가지 사건은 여기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입다야, 여기 있어.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상대할 것입니다.

여기 삼손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은 본래 그 상속 재산을 바로 여기 이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약 2분 후에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음, 5분 후에 우리는 단 지파의 일부가 북쪽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삼손은 매우 흥미로운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여성을 둘러싼 국제적 문화의 유혹입니다. 삼손은 늘 더 발전된 블레셋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마치 멋지고 안전하며 안전한 작은 집을 떠나 대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가거나 뉴욕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보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성장했지만 나실인 서약을 어겼고 확실히 여자들의 계략에 반복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딴나로 향할 때 그곳은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곳은 그가 출발하는 곳이지만 그곳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아스글론에 상륙할 것이고, 마침내 가자에도 상륙할 것입니다. 지도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또 다른 점은 삼손이 가자에서 밤을 보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매춘부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그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문과 문기둥들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떼어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레벨 상승이 아닙니다. 글썄요, 어쨌든 레벨 상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르막길은 쉽지 않고, 평지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면서 해수면에서 해발 약 2,600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나실인 서원을 통해 가졌던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나실인 서약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가 그 일을 매우 빨리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서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성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비록 그가 반역적인 나실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나실인 재판관입니다. 글썄, 이야기. 13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므로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그런데 13장은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더군요.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의심이 많아 다시 나가서 그 일을 다시 묻고자 하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준다. 그러자 삼손의 아버지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답은 13장 18절입니다. 왜 내 이름을 묻습니까?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경이롭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한 자라 할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삼손과 그의 약점 그리고 블레셋 여자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팀나로 내려갑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원합니다. 그는 부모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4절, 괄호.

그의 부모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할 기회를 찾고 있던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글썄요,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아시다시피 그는 가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응, 복수의 정신이지. 여자뿐만 아니라 항상 복수하려는 그의 의도가 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알아내게 하려고 자신을 속인 팀나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전의 기둥들을 헐고, 그 기둥들에 손을 대며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여, 내 눈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내게 주소서 그가 그것을 밀어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으리라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한 약점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며 다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조금 쉬려고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즐거운 봄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이제 다음 강의를 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사사기의 주제별 배열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제안한 것처럼 17장부터 21장은 아마도 연대순으로 앞선 사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연대순으로 더 빠르며, 이것이 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읽지 않고 돌아가서 조금만 복습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모세의 손자 아마도 여기에는 본문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장의 끝 부분에는 이 전체 내용이 단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 모세의 아들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마도 300년 후가 아닌 사사 시대 초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론의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건들이 이 사사 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하네단(18장)은 그 장소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삼손, 삼손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18장에서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명명된 마하네단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따라서 18장이 더 빠르다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주요 적이며, 이는 사무엘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1

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이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은 이 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글썄요, 왕을 갖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이 중요합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벤자민, 벤자민 출신이 누구야? 첫 번째 왕은 S, AUL로 시작합니다. 네, 사울이 여기서 진짜 첫 번째 왕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에브라임도 그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앞으로의 사건이 전개될 때 중요한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북왕국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족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언급했고 이것이 이 마지막 섹션 전체에 걸친 드럼비트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압박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세요. 흥미롭게도 레위인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추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이야기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에게도 몇 가지 약점을 봅니다.

좋아요, 우리는 잘 지내요? 경마?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들. 17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문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잘 들어맞지 않는 두 가지를 함께 묶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시험해 보겠습니다.

미가 라는 남자가 돈을 훔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훔친 사람에 대해 저주를 발합니다. 그는 축복과 저주의 영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 돈을 가져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저주의 결과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돌려보내며 그 여자는 '내가 내 은을 여호와께 바쳐서 조각한 신상과 우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조각한 형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 가장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Beit Elohim)입니다. 5절입니다.

에봇 우상은 그의 아들의 제사장 중 한 명을 만듭니다 . 여기에는 몇 가지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잡나요? 몇 가지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의 끝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방황하는 레위인을 임명한 후 방금 지나가던 사람을 세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압니다. 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극히 피상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나가서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끔찍한 문제들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단 지파의 일부는 블레셋 지파와 유다 지파의 압박을 받는 데 지쳤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북쪽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은 물, 무성한 성장,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의 일부만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지파 중 단의 지역에 머물렀던 지파.

그 곳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을 지나서 그의 산당과 그의 레위 사람을 붙잡고 그것을 다 단에 세웠느니라. 그리고 18장의 끝부분에서는 이에 대해 알려줍니다. 포로기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Dan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뒤쪽 버너에 올려 놓으십시오. 거짓 예배의 장소인 단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은 비극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19장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착해야 할 레위인은 먼저 도망친 첩을 데리러 유다 지파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여부스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여부스는 외국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류 중 하나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방의 도시 기브아로 갑니다.

그러면 기브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음, 그것은 창세기 19장과 소돔의 공포의 재방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NIV에는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첩을 붙잡고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밤새도록 학대를 당했고, 문턱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12토막으로 자르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러면 그들은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따라서 21장은 두 가지 법적 허구를 포함합니다. 21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적 허구를 찾아보세요. 자, 이건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는 한 시간에 두 시간 분량의 일을 했습니다. 이 장들을 읽고 즐기십시오. 나는 마지막 네 가지가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봄방학 보내세요. 안전하게 가세요.